Strasbourg과 칼빈

최 병섭 교수

Strasbourg는 유럽 역사와 인간 사상에서 자강 중요한 역할 하나를 맡는 시대를 맞이한다.
칼빈이 Strasbourg에서... 1538년 9월에서 1541년 9월까지. 정확히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칼빈은 그 때에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했다;
Strasbourg 그리고 칼빈: 가치가 높은 이 두 세력은 처음 만나게 된다. 우리는 먼저, 이들의 만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같이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원하지 못한 만남, 3년 동안의 만남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자.[1)]

I. 칼빈 이전의 Strasbourg

이 도시에 칼빈이 오면서, 느낌은 정치적, 지성적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매우 안정된 상태로 볼수있다.
Scaliger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다른 곳보다 여기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제일 성실하다." [2)] M. Schmidt는 "솔직히 질투가 나는 국가다," "Strasbourg는 지성적인 부르주아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한다. 행정관은 성실하게 일한다. 얼마나 단호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잘 지키는지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3)] 프랑스 왕은 이와 같은 스트라스부르과 다시 동맹을 원했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위대한 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Strasbourg의 숫자만큼 그의 용병이 기꺼이 되겠노라고했다.[4)] 그 결과 1538년 5월, Nice의 평화는 유럽에서 전쟁 중에도 6년 동안 숨 돌릴 여유를 갖고, 또한 그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1. Jacques Sturm

Jacques Sturm은 알사스 사람이며 1524년부터 의원이었다. 그는 성실한 개신교도이며 모든 광신적 신

---

1) [주요 작품들: Opera Calvini, edition Baum(바움 출판사), Cunitz et Reuss, 1869; Herminjard, 개혁자들의 교류(correspondance des reformateurs.); A. Maeder, 스트라스부르 개혁 예배당에 대한 설명(Notice sur la paroisse reformee de Strasbourg), Strasbourg, 1853, in -8.; Eug. Berton,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의 교회(l'Eglise de Calvin a Strasbourg), Montauban, 1881. in -8.; A. Viguie, 스트라스부르 의 칼빈(Calvin a Strasbourg), 스트라스부르에서의 회의(conference a Strasbourg), Paris, 1880(Revue chretienne); Ch. Schmidt, Jean Sturm의 업적과 생애(la vie et les traveaux de Jean Sturm), Strasbourg, Schmidt, 1855; G. Anrich, Martin Bucer, Strasbourg, Truebner, 1914; R. Reuss,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프랑스 교회 역사를 위한 자료들(Notes pour servir a l'histoire de l'Eglise fr, de Strasbourg), Strasbourg, 1880; 상동, Pierre Brully, Strasbourg, 1879; 상동, 스트라스부르의 역사(Histoire de Strasbourg), Paris, Fischbacher, 1922; E. Stricker, 스트라스부르의 첫 개혁 모임의 목사로써의 칼빈(Calvin als erster Pfarrer des ref. Gemeinde zu Strassburg), Strasbourg, Heitz, 1890; Seyboth, 역사적인 그리고 경건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historique et pittoresque, Strasbourg, 1894; A. Erichson, 칼빈의 그리고 옛 스트라스부르의 예배순서(Die calvinische und die altstrassburgische Gottesdienstordnung), Strasbourg, Heitz, 1894; 상동, 스트라스부르의 프랑스 교회(l'Eglise francais de Strasbourg), Strasbourg, Schmidt, 1886; E. Doumergue, Jean Calvin, Lausanne, Bridel, 1902; 상동, (Iconographie calvinienne, ibid., 1909; W. Walker, J. Calvin(Weiss 번역), 제네바, Jullien, 1909.]
2) Scaligerena, 1666년의 출판, p. 333.
3) Jean Sturm, p. 22
4) R. Reuss, 스트라스부르의 역사(Histoire de Strasbourg), p. 107, 133.

앙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Pere de la patrie(조국의 아버지)"라고 칭했다. 칼빈은 정치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라면 아마 이 보다 더 좋은 스승을 못 찾았을 것이다.
Jacques Sturm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국민들의 교육이었다. 1526년의 교육 위원회에서 그는 첫 "scolarques"였다. 초등학교, 라틴어 학교 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문을 연다. 1530년경에는 도피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생긴다. 1535년경에는 Jacques Sturm이 옛 도미니카 수도원에 그의 책을 기부하고 진열해서 새로운 국민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도서관이 1870년에 허물어진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그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국가에서 온 우수한 교수들이 나란히 앉아서 가르치는 대학교를 꿈꿔왔다.

2. Jean Sturm

국민 교육에 있어서 특히 Jean Sturm이 Jacques의 보좌를 이어 받았다- 그와 이름이 비슷하나 그의 친척은 아니다.
그는 Jacques처럼 알사스 사람이 아니고 칼빈처럼 프랑스 출신이었다. 칼빈이 태어나기 2년전, Jean Sturm은 Luxembourg에 있는 Sleide에서 태어났다. 몇 달 사이로 같은 곳에서 이 곳의 이름을 알린 사람 중 한 사람인 Philippe가 태어났다. 그도 역시 나중에 칼빈의 친구가된 사람이다.
1870년의 한 작가가 썼듯이 Jacques와 Jean Sturm으로 인해 Strasbourg는 XIII세기부터 이어진 "지성적인 면을 볼 때 독일의 열쇠"라는 전통을 이었다. 5)
그들은 인문주의자 Wimpheling de Selestat의 인문주의적인 관점의 제자였으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를 추월한다. 그의 스승은 그래서 Jean Sturm이 "poison wiclefit"에 오염됐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칼빈은 1529년부터 college de France의 선생님이었던 Jean Sturm을 파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이런 그가 1537년에 Strasbourg으로 부른 것이다. 1538년 6월 24일, 그는 교장으로 임명받았다. 9월 30일, 그의 첫 강의가 옛 프란치스카 수도원에서 있었다(현재의 place Kleber.). 4주 동안 강의를 하였고, 분명 그 자리에 칼빈이 한 번 청중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곧 공석인 시의원의 의장들의 자리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교육에 대한 활동으로 나중에는 "근대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학자"라고 까지 불린다.

Strasbourg, Wendelin Rihel 에서 인쇄된 한 작품에서, Sturm이 이렇게 썼다: "공부의 목적은 경건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선생들은 고대에 얽매이지 않은 선생들이다. 그는 개신교 교리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1533년부터 Bucer 목사과 활발한 교류를 한다. 바로 Bucer 때문에 Strasbourg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처음에는 실제로 Bucer 집에 머물렀다. Jean Sturm은 Jacques Sturm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양쪽에 친구가 있었다. 그는 Strasbourg에 있을 때 신부로부터 성례 집행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었고, 35년 동안 Montluc 주교와 교류를 했다. 그는 심지어 Saint-Barthelemy 후에 알사스를 지나갈 때에 hotel du Boeuf에서 주교로 부터 저녁식사 초대도 받았다.
Jean Sturm는 국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다. 1538년, 그는 "국적이 다른 이유로 놀리는" 학생들을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는 역시 Jacques Sturm처럼 프랑스를 더 사랑한 사람이다. 그는 파리에서 결혼을 했다.6) 그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해 봉사를 했다... 그의 신념은 독일 개혁보다 프랑스와 알사스 개혁을 향해 있었다. 그는 Bucer의 Sainte Cene에 대한 글에 서론을 적어줬다.7) 그는 나중에 Strasbourg의 프랑스 교회에서, 설립된 그 날부터, 그 교회의 일원이 된

5) R. Reuss, 스트라스부르의 역사(Histoire de Strasbourg), p. 112.
6) 스트라스부르에 온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 Jeanne Pison은 죽고만다.
7) 1561년 재 출판됐음.

다.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톨릭하고 개신교도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는 인문주의자요 교육자로서 중용의 길을 가면서 평화를 갈망한 개혁자였다. 마치 형제처럼 사이좋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던 사람이었다.

3. Martin Bucer

Jean Sturm이 교육을 위해, Jacques Sturm이 국가를 위해 봉사를 했듯이. Bucer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Strasbourg의 하늘을 밝히는 별들이 된 것이다.[8)]

다른 국가에서 보면 학교, 국가 그리고 교회, 이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이웃 사촌이다. 그러나 행복한 Strasbourg는 이 세 개의 분야에서 특별한 소동, 또는 피 흘림 없이 비교적 완만하게 개혁을 이루었다. 혁명은 없고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Jean Sturm의 전기 작가는 이러한 Strasbourg의 좋은 특권을 기록했다.

"Strasbourg에는 개혁, 교회의 새롭게 함은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됐다. 정신이 맑고 우아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와서 참으로 놀랍고 감탄할 만한 개신교 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줬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여기보다 더 자유스럽고 일정하게 발전한 곳이 없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설교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줬다. 개혁은 의회의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의회에서는 단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잘 실현하면 된 것이었다... 또한 Strasbourg에서의 개혁은 그 곳의 문화와 발걸음을 같이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윗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원들과 지식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들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9)]

Strasbourg는 파리와 Wittemberg 사이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ichelet의 말이 옳다: "개혁은 여기 모든 곳에 토착이 됐다, 이 땅의 열매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Strasbourg에서 말이다. 우선은 루터나, Faber나, 심지어 칼빈이 아니라, Strasbourg의 개혁은 Bucer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칼빈도 여기에 머물면서 Bucer 학파였다.

Bucer는 Selestat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칼빈의 할아버지가 Noyon에서 통장이었듯이 Bucer의 아버지는 Strasbourg에서 통장이었다. Bucer는 1523년에 Strasbourg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1524년 1월에 개혁의 움직임이 보였다. 4월부터, 처음으로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지 않았고 '대중적인 언어'로 진행되었다.[10)] 이러한 사건은 루터가 2년 후, 1526년에서야 실행했다. 그러므로 루터 보다 앞서서 개혁의 기치를 든것이다. 그리고 루터 전에, bucer는 감히 결혼을 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Strasbourg의 주교의 보좌 신부의 명령에 따라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Bucer는 그래서 Zwingli에게 스위스에서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그러나 Bucer는 나중에 Zell 그리고 그 다음 Sainte-Aurelie에서 성경공부만 인도했다.

그는 루터보다 젊고 칼빈보다는 18살이 더 많았다. 그는 루터처럼 원래 수도승이었다. 마치 칼빈처럼, 그도 역시 Erasmus의 제자로 시작했다.[11)] 그 다음, 그는 루터를 만나 후에 "Martinien"이 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루터의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는 그 때 오히려 Melanchton에 더 가까웠다. Meaux 옆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는 "biblien(성경 학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자극했다.

---

8) 1530년부터 Bucer는 Jacques Sturm을 "heros noster"라고 부른다.
9) Ch. Schmidt. Sturm, p,22
10) Theobald Schwarz가 진행. 그의 자화상은 Sainte-Aurelie의 성기실에 있다.
11) 1528년에 죽은 Jean Knobloch 또는 Knoblouch는 Geiler, Gerson(Opera, 4권으로 이루어져있음, 1514), 루터(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Erasmus(신약)의 작품들을 인쇄했다. 마지막 두 작품에는 그의 표시인 '마늘(Knoblauch)'이 있다: cf. Heitz, 알사스의 책 표시(Elsaessische Buechermarken), 1892, p. XVIII 그리고 p. 19; Doumrgue, J. Calvin, II, p. 713 그리고 780.

그는 Strasbourg에서 모든 개혁 동업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이 아직 도시를 떠나지 않은 수도승과 설교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했다. 그는 Strasbourg의 교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다. 그는 심지어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사이가 좋기를 바랬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중재자였다.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에서의 평화는 프랑스에게 매우 좋은 것이었다. Bucer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의 왕은 우리를 그가 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가 여전히 그에게 힘을 준 교황이다."[12] 그가 루터의 "postille"을 번역한 것은 프랑스의 형제들을 위함이었다. 그가 1529년에 시편에 대한 논평을 내놨을 때, 그는 가짜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다. 그는 Zwingli에게 이렇게 썼다: "가짜 이름을 쓴 이유는, 내가 프랑스 인처럼 보이게 해서 프랑스의 형제들이 내 책을 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1537년, Berne에서 Jean Sturm과 그는 Farel의 글을 프랑스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서명을 했다. 그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Strasbourg이 프랑스와 독일을 이어주는 밧줄이 되기를 원했다.[13] 그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 유럽의 개신교도들의 모임을 만들기를 원했다.[14] 국제적인 정치나 종교적인 정치에서나, 그는 늘 추구했던 것이 있다: 평화, "conciliator et pacis"[15] 그는 칼빈에게 모든 논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형제애라고 했다.[16] Ratisbonne에서의 Bucer의 노력, 그리고 그가 황제와 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칼빈은 이렇게 썼다: "Totus ardet stidio concordiae"(1541년 3월.)

그는 Melanchton의 신앙고백을 황제에게 보여주고, 다른 세 곳의 황제의 도시에서 서명을 받아와, Tetrapolitaine의 이름 하에 Strasbourg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만들었다.(1530)

Saint Cene의 사상은 1536년 Institution chreistienne에서 볼 수 있는 사상과 조금 비슷하다. 칼빈이 Bourges에서 분명히 Bucer의 글을 접해봤을 것이다.[17]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Bucer와 많이 닮은 것 같다.[18]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칼빈의 프랑스 인의 정신으로 인해 반대현상이 일어난다.[19]

교회 조직에 관해서는, 그는 창시자였다. 그의 감독 하에 1534년 Strasbourg에서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Jean Sturm처럼 그는 지도자 외에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눈에는 신부들의 권한이 너무 높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의 규율을 만들었다.

그의 넓은 생각은 우선 재세례파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개혁의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그는 강경한 재세례파의 세력들은 물리쳤다. 그러나 그 세력은 남아서 칼빈이 Strasbourg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조그마한 재세례파의 세력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Basel에서 Institution을 통하여, 개신교는 세워진 질서를 파괴하는 재세례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여 체계화 한것은 역

---

12) Anrich, Bucer, p. 95.
13) Bulll.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hist. prot. fr., t. XXI.)
14) 1544년의 그의 자화상에는 이렇게 써져있다: "Mihi patria coelum."
15) Anrich, p. 141.
16) "Caritas vero scis quam late patet, scis qua in fratribus fert, qua dissimulat, scis ut captat consensum cum omnibus filiis Dei"(1549년 8월 14일).
17) 개신교에 대한 논평, 1527-1528, 시편에 대한 논평, 1529.
18) 비교. Baum, Capito와 Bucer(Capito und Bucer), 개혁 교회의... 목사들(Leben der Vaeter... der ref. Kirche), III, Elberfeld, 1860; Usteri, 연구와 비평(Studien und Kritiken, 1884, p. 417, 456 etc.; Scheibe, 칼빈의 예정론(Calvins Praedestinationslehre, Halle, 1897; p. 20, 72 etc.; Seeberg, 교의사(Dogmengeschichte), II, Erlangen, 1898, p. 380; Lang, M. Butzer의 개신교 논평(der Evangelienkommentar M. Butzers), Leipzig, 1900, 서론; etc.
19) (이.프.스) 체계속에 생명이 / 생명에는 체계가 있다(독일. 러시아)
schola primarium membrum ecclesiae. 교회의 우선적 조건 멤버로서 학교

시 칼빈이였다.
이렇게 Bucer와 칼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다.

II. 칼빈, 공적인 인간

1. 종교적이고 학술적인 활동 (1538년 9월에서 1540년 7월까지)

칼빈은 그의 시간을 가르치는 데에 다 썼다. 그는 두 군데에서 가르쳤다: Sturm과 함께 학교에서, 그리고 Bucer와 함께 교회에서. 제네바에서 마찬가지로 Farel이 이 곳에서의 선구자였다. 첫 "welche[20] 박사"는 Strasbourg에 1542년에 들어온 Lambert d'Avignon이였다. 그러나 첫 선교자는 1525년의 Farel이었다: 그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Lefevre와 Roussel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람 곁에는 또한 국가의 사정으로 도망을 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 프랑스 북부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이해 쫓기는 몸이었다. 즉, Strasbourg는 나중에 제네바가 될 것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Strasbourg는 "프랑스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되었다.

유명한 사람들이 떠난 후 몇몇의 사람들이 조금 남았다.[21] Strasbourg의 교회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 도망자들도 그 모임에 속해있다. 그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3개월만에 Titel을 하나 받게 되었다. 2월 1일, "칼빈, 한 프랑스 인인 그는, 지식이 풍부하고 경건하며, 신학을 했으며 Penitentes에서 프랑스어로 설교를 한 사람이다. 그는 1년 동안 조교수로 52 florins를 받기로 한다."[22] 전쟁 전에는 1 florin의 가치는 5 francs 또는 6 francs 정도였다. 즉, 이 계약에 의하면 1주일에 1 florin 또는 한 달에 20에서 25 francs였다는 뜻이다.[23]

제네바에서 칼빈은 먼저 교수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를 가르쳤다." 이렇게 1536년, Capiton의 문서에 적혀있다. 그는 다음 해에, 제네바에 "예배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인해 칼빈에게 설교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다. 그는 이러한 설교자의 역할은 Strasbourg에서는 곧바로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 도피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했기 그래서 그는 첫 4달 동안 완전히 목사님으로써만 봉사를 했다.

그는 어떻해 설교를 했는가?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중요시 여겨서 성경을 강해했다. 그는설교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1537년, 그의 Catechisme(입문서)에 썼다.[24] 그처럼 설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그는 시작하면서 부터, 나중에 기독교인 웅변가로써의 말솜씨를 그 때에도 갖추고 있었다: "... 그는 쓸데없는 것에서 흔들거리지 않고 경고하며 힘이 넘친다: 그의 말에서는 우아함보다 진실함이 느껴진다."[25]

Bucer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역시 지식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그는 친근한 표현을 쓰려고 했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했다. 이는 여러 계층의 청중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쫓기는 동안, 칼빈은 아무리 학식 없는 사람일지라도 신앙고백을 할 줄 알아야한다고 했

---

20) 독일인이 외국인을 보고 가리키는 말.
21) Sebald Buheler와 같은 Strasbourg 역사학자의 과장된 말들은 전부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1870년에 태워진 그의 글에는 1540년경에는 스트라스부르의 시민의 3분의 1이 프랑스인이라고 적혀있다.(Roehrich, Gesc. der Reform., II, 66) 확실히 프랑스 도망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로 금방 가버렸고, 정착한 프랑스 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R. Reuss, Notes pour... l'hist. de l'Egl. fr., p. 13, n. 3)
22) Schmidt, Sturm, p. 48.
23) Hanauer는 그의 Etudes economiques(Paris, Durand, 1876)의 1권에서(Monnaies) 정확한 그림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florin은 1546년에는 5 fr. 40의 가치였다.
24) Catechisme, edition Rilliet et Dufour, p. 92.
25) Commentaire sur toutes les epistres(Opera, XLIX. 321)

다. 칼빈이 Strasbourg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으면, 싸움을 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무기로는 한 가지의 검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26] 즉, 그의 설교나 그의 교리는 근본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했다. 칼빈의 예배는 얼마나 걸렸을까? 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후속 목사들처럼 1시간 반은 걸렸을지도 모른다.[27]

교회는 어디서 모였는가? 우선 Saint-Nicolas-aux-Ondes의 예배당이다.[28] 도시의 남쪽의 성벽지대 나무숲 사이에 예배당이 위치하고 있다. 그 곳에, 옛날에는 Saint-Nicolas의 건물들이 있었다. 두 달 후, 집결 장소는 옆으로 이동된다. 모인 장소는 여전히 섬의 오른쪽에 강을 둔 곳, Penitentes 예배당에서 모인다.[29] (오늘날 Saint-Madeleine, 태워버려지고 만 교회) 1539년에만 해도 그 교회는 새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회의 첫 돌은 Geiler가 있었을 때, 50년 전에 놓여졌다. 칼빈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또 하나의 세 번째 장소는 도시 중심, 도미니카의 심장부였다. 그 장소에서는 12개월 동안 있었다. 바로 그 옆에 Jean Sturm이 설립한 "College des Pecheurs(죄인들의 학교)"가 있었다. 거기에 또한 Jacques Sturm이 시작한, 그리고 1870년 8월 24일, 또 다른 Saint-Barthelemy로 인해 사라지고 마는 도서관이 있었다.[30]

칼빈은 1541년에 지금 현재의 Temple neuf(새 사원)에서 설교를 했던 것이다.

칼빈은 또한 단순히 Farel처럼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작은 양떼에게 종교적인 양식을 주는 목자는 또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했다. 그가 설교한지 3달 후에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생각을 할수록, 나는 억누르고 깔아뭉개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더 생4각이 난다... 그들의 악덕을 참아내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잡아야한다.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들처럼 고쳐줘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을 끝까지 도와줘서, 그들의 걱정이 무뎌지고, 그들의 고통이 낮 햇살에 없어지게 해야한다."[31]

설교자들의 총회도 있었지만, 프랑스 교회는 그저 Strasbourg 교회의 일부에 속해 있는 교회, "교회 속의 작은 교회"였다.[32] 이 교회는, 나중에 생겼지만,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신앙고백'이 없었던 것 같다. 칼빈은 그 때에, 사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도시 연맹의 고백을 점착할 수 있었다. 칼빈은 Augusbourg의 고백을 쓰라고 나중에 권한다. 칼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썼다: "... 왜냐하면, 우리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때 Augustin의 고백은 1541에 Ratisbonne에서 수정된 바가 있었다.[33]

미사 집행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졌다. 칼빈은 지방의 방법(secundum loci ritum)을 따랐다. Roussel이 이 미사 대해서 썼다: "하나의 큰 탁자가 있는데... 성만찬에서 제물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탁자에 설교자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1540년, 어느 자유 분방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34] Strasbourg의 성례방식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그는 목사님은 "보통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은 탁자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있다. 빵은 어떤 사람에게는 손

---

26) Reponse a Sadolet(1539), opuscules, p. 164.
27) Erichson, Eglise fr. p. 23.
28) Sturm, Quarti Antipappi, etc., Strasbourg 1580, p. 20.
29) Ibidem, p. 115.
30) 도서관을 나타내는 판화가 있다(바로 도미니카의 옛 예배당의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있음). cf. Erichson, Die Strassburger Universitaetsfeste vom Jahr 1621, Strasbourg, Schmidt 1884.
31) 1528년 12월 29일(Herminjard, V, 446.).
32) Erichson, l'Eglise francaise de Strasbourg.
33) 비교. Doumergue, Calvin, II, 582.
34) 이 사람은 칼빈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다.

에다 쥐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입에 넣어진다.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은 목사님으로부터 첫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는 둘 째 사람에게 준다. 그는 또한 셋 째 사람에게 주고 목사님에게 올 때까지 한바퀴 도는 것이다. 이러한 미사는 매 주일에 이행해졌다. 단지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밖에 없었다." [35] 그리고 프랑스 교회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Strasbourg교회의 연합체에서 속해있다.

1525년 이후, '대중적인 언어'로 설교하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료됐다. 그래서 성도가 많은 곳은, 여름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예배를 총 6번까지 했다. Strasbourg에 있는 작은 프랑스 교회의 경우 주일에 한 번으로 족했을지도 모른다.[36] 어쩌면 주일 오후에 예배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주중에는 3개의 예배가 있었다. 만약에 목사님이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못 오게 되면 평신도가 진행을 한다(그 당시 매우 새로운 사실. 장로들이 없었다. 집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목사 보조의 역할을 해줬다!)

이러한 프랑스 피난민 가운데 또한 몇 명의 다른 외국인들도 섞여있었다. 주로 이태리 인이었다. 여기에 또한 몇 명의 시민들도 있었다. 그 중에 Jean Sturm도 한 명이다. 그는 칼빈이 떠난 후에도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었고, 칼빈이 있었을 때부터 해왔던 회계와 서기의 역할을 맡았다. 또한 시민 중에는 Dasypodius 그리고 나중에 Sleidan도 들어온다.

처음에, 혼자 싸움터에 있던 칼빈은, 불규칙한 요소들로 잘 정돈된 '몸'을 만들려고 했다. 첫 예배를 한지 한 달 후, 칼빈은 이렇게 썼다: "... 새로운 질서를 잡으려고 하나 반대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긴 체 하고 있다." 지난 봄에 경험했던 슬픈 기억을 넘어서, 칼빈은 여기서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Melanchton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칼빈은 1539년에는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것이라면-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실 것이다.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마지막 숨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자." [37]

특별한 권면에서는(그런 의무적인 자리가 아니고) 칼빈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모든 고통받고 괴로운 심령들은 자기의 목사님에게 "권고와 위로"를 찾으라고 했다.[38]

칼빈이 자신의 권위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는 것을 느끼자, 그는 1538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법칙들을 실행하게 만들었다. 부활절에 그는 다음 주 주일에 성찬식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된다고 했다." 칼빈은 "몇몇의 프랑스 인들을 사로잡은 광신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아마도 이것은 세례에 대항 재세례파의 입장에 대한 경고였다. 학교의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칼을 버리고 "학교에 맞게" 하고 참여해야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항거는 확실하다. 나는 그들을 안 돕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그들이 질서를 모르는 체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떠나버리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이렇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수인 그는 교장과 일을 같이 추진했다. 학교의 교칙에 도전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비난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만찬처럼 또한 중요하고 큰 영광인 것은 세례다. 재세례파들은 세례는 어른이 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칼빈은 어린이들의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9]

종교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리 문답집을 이용했다. 그는 과연 Bucer가 추천한 confirmation(견진 성사)

---

35) Czerwenka, aide, a Leutomischl, du frere Jean(Augusta). Cf. Doumergue, Calvin, II, p. 490, 그리고 Gindely, Quellen zur Gesch. der boehn. Brueder, 1859, p. 35 그리고 그 다음.

36) 후에 칼빈의 뒤를 이은 사람중에는 아침 7시에 한 번 드린 적도있었다.

37) Farel에게, 1539년 3월(Herminjard, V, 270).

38) 그 당시 Strasboug 목사님들의 공통된 방법(Herminjard, IV, 45).

39) Opera, IX, 894.

를 이용했는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2. Le chant(찬양)

칼빈의 예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노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인들에게 교회를 줬는데, 그들은 거기서 프랑스어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 : 이 광경을 본 한 방문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40] "루터가 길을 텄고, 온 세상은 노래하네... "[41]

그러나 개신교 찬양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1538년, 많은 사람들이 칼빈처럼 Picardie 지방에서 피난 왔다. 그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 Strasbourg에 있으면서, 그들은 여기에 흐르는 독일 알사스의 분위기에 매료됐지만 언어를 못 알아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그들의 언어로 부르고 싶어했다.

노래는 많은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자도 취미로 많이 불렀다.[42] 칼빈은 Bourges에서, Sturm이 Sleidan과 더불어 목소리가 아름다운 Wolmar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43] 1537년, 제네바에서 시편 찬양을 알렸지만 그러나 실용화 될 시간이 없었다. 1525년부터, Strasbourg에서 Roussel이 Briconnet에게 편지를 쓴다: "여자들과 남자들의 목소리가 어울리는 노래가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창조해내며, 매우 듣기에 좋았다."[44] 20년 후, 한 외국인이 프랑스 교회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썼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편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마음의 안정이 되는지 모른다. 나는 거기에 5, 6일 머물렀을 때,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들은 이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 했을 것이다. 교회에는 각 사람들이 한 명씩 찬송가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들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잘 정돈된 도시고, 시민들은 복음을 사랑한다"[45]

"외국에서 모국어의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각 사람들이 그의 손에 찬송가를 들고서... "[46]

칼빈의 책에 이런 서론이 있다: "우리는 경험으로 노래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게 만들기 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래와 함께 하면, 마음에 더 와 닫는 것이다."[47]

칼빈은 하프를 높게 평가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찬양만 했다: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며, 마음과 입으로 '대중적인' 언어로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48] 바로 여기서 칼빈만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 첫 째, 모두 찬양을 했다. Zwingli는 성가대를 만들었지만, 칼빈은 그것을 없앴다. 두 째, 대중적인 언어로 찬양을 했다. 루터는 그 어떤 곳에서도 라틴어를 배제하기 싫어했다.

Strasbourg에서 "예배드릴 때,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바꿨다. 성도들은 시편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그런 후에는 더욱 더 숫자가 증가했다. 성도들은 사도신경과 10개명을 찬양한다. 1530년, Koepphl이 인쇄한 책: Psalmen, Gebet und Kirchenuebung에 이미 30편의 시편과 여러 찬송이 있었

---

40) Zwick의 편지, 1538년 11월 9일(Opera Calv. X, 288)
41) Hist. de France au XVI s., t. VIII, 1861년 출판의 서론, p. 12.
42) 1524년에, 루터는 Enchiridion을 출판했다.(Th. Gerold, fils, Les Mmelodies des premiers chants des protestants a Strasbourg. Bulletin de l'Union protest. liberale, Strasbourg, 192년 3월.)
43) Schmidt, Sturm, p. 298.
44) 1525년 12월, Herminjard, I, 407.
45) Martin du Mont라고 불렸던 한 반론 지방의 학생이 Anvers에 있는 그의 친구 Jean de Bois에게 보낸 편지(1545); S. Thomas 참사회원의 고문서; Erichson이 인용했음, l'Egilse francaise, p. 14.
46) Ibid., p. 21.
47) Forme des prieres etc. 그리고 chants ecclesiastiques, 1542, 독자에게로의 편지(Opera, VI, xv 그리고 161.)
48) Homelie sur I Sam. XVIII.

다.” [49]

무엇을 노래합니까?라는 질문에 칼빈은 이렇게 대답한다: “성령이 다윗에게 말해주고 영감된 시편으로 찬양한다.” 곧, 신학자이며 동시에 시인인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Farel에게 1538년, Neuchatel, 그 다음 Metz에서 찬양하라고 시인이 준 시편들이 있다. “... 나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데로 시편 46편과 25편으로 시작했다.” 46편은 바로 루터가 1529년에 번역한시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 칼빈이 Ferrare에서 만난 Marot은 1541년에 시편을 출판했다. 그 중 8편은 , 칼빈의 7편과 더불어 1539년, 칼빈이 편찬한 책에 수록되어있다.[50]

이 책은 1539년 봄, Frankfurt 전시회 때 나왔을 것이다.[51] 그러나 알려진 유일한 복사본은 지금 Muenchen에 있는 국립 도서관에 있다.(63 페이지) 이 책은 칼빈의 다른 작품들처럼 Wendelin Rihel이 인쇄한 것인가, 아니면 1542년에 재 출판된 것처럼 “Bruesz”에서 인쇄됐는가, 아니면 1545년에 재 출판된 것처럼 Knobloch(rue de la Demi-Lune, Tourterelle의 집.)이 인쇄했는가? 우리도 이 문제의 답은 모른다.

Mathieu Greiter, 성당의 옛 성가대원인 그는, 특히 119편을 위해 작곡을 했는데, Beze는 그것을 시편 68편에 맞췄다, “전투의 시편” . [52]

3. 예전(예배)

칼빈은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싶어했다. 그는 예배가 재세례파들처럼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재세례파는 그들 마음 데로 또는 그들이 상상한 데로 말씀, 기도, 찬양을 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는 특정한 “질서 하에서” 진행되어야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절차와 함께.” 그래서 1539년 아니면 1540년에 첫 프랑스 예전 원고가 인쇄됐다. 이젠 남은 복사본은 없지만, 칼빈 뒤를 이은 Pierre Brully의 수정판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한 프랑스 교회에서의 기도하는 방법, 1542. 로마에서 Theodore Bruesz가 인쇄했음.” [53]

이렇게 구성됐다:

기원.
죄의 고백.
“심령들을 위로하는 말씀” .
사죄.
모두가 다섯 계명의 노래를 부름.
기도.
목사님이 설교단에 오르고 기도를 하고 Notre Pere(우리의 아버지)로 끝낸다.

---

49) Th. Gerold, fils, loc. laud.

50) in-16 형태의 작품, 총 4장으로 이루어져있다.(A, B, C, D) 32의 작은 장과 63페이지로 이루어져있다.(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백지다.) 3페이지부터 번호를 매겼음.

51) 18편의 시편과 3개의 찬송가가 있다. 총 21 편인데, 각 편의 1절에 음이 붙어있다. 그러나 서론 작곡가, 번역가 등 그 외의 정보는 없다. 시편들은 이와 같다: I, II, III, XV, XXV, XXXII, XXXVI, XLVI, LI(L만으로 표시됐다.), XCI, CIII, CXIII, CXIV, CXXX, CXXXVII, CXXXVIII, CXLIII, 그리고 찬송가 10계명과 Credo 찬양이다. 여기에 Marot의 시편 12편을 발견할 수 있다: I, II, III, XV, XIX, XXXII, LI, CIII, CXIV, CXXX, CXXXVII, CXLIII.(Douen, Clement Marot, 1878, I, p. 302).

52) M. Riggenbach에 의하면(Der Kirchengesang in Basel, p. 38), 시편 XXV는 mat Greiter의 시편 CXXV의 음으로 불렀다고 한다; XXXVI편은 위와 같은 작곡가 CXIX편의 음으로 노래했다고 한다; XLVI는 Wolfgang Dachstein의 XXV편의 음을 사용했다고 한다; XCL은 Mat. Greiter의 LI편; CXXXVIII는 같은 작곡가의 CXIV의 음을 사용했다고 한다.

53) 유일하게 알려진 복사판은 M. Stoehlin의 도서관에 있다.

설교를 한 다음에 기도.
다같이 시편으로 찬양을 한다.
목사님이 축도를 한다.

이 예전은 근본적으로는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Farel이 제네바에서, 그리고 Bucer가 Strasbourg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칼빈이 인용하여 만들었다. Strasbourg 설교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쓰고 있었다. 1524년, Diebold Schwartz가 독일어로 예배를 진행한다.[54] 그 다음, 개신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지웠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체 임의대로 진행이 되었다. Bucer는 모든 곳에서 어느 특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효력이 없었다.
사실 이 예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느 부분은 Farel의 예전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Bucer와 비슷하다. 이렇게 서로 참고하면서 예전이 생겼다. 그러나 '죄의 고백' 부분에서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것은 확실히 프랑스 예전이다.
'죄의 고백'은 오늘날까지 모든 프랑스 개혁 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루터 학파의 예전에는 이 요소, 또한 사죄 부분도 빼버렸다. 목사님이 설교단에 오르는 것은 예배의 후반부에만 올라갔고 십계명을 모두 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1539년 칼빈 예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다른 Strasbourg 교회에서도 그랬듯이 Credo를 찬양하게 했다. 칼빈이 자유롭게 계획한 프랑스 예배에는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해설로 끝났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해설 부분은 제네바에서 빼어버렸다. 또한 칼빈은 기도할 때에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썼듯이, "가장 인간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전통을 강조했다. 봉헌도 칼빈에게는 봉헌자의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었고 모든 지체들의 사랑과 결례 또는 독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55]
이러한 예배는 3세기 반 후에 M. Bersier 목사님의 예배와 비슷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ucer의 사상은 그로 인해 Cambridge로 넘어갔고, the book of common prayer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또 다른 루트로도 가능하다. Strasbourg에서의 칼빈의 뒤를 이었던 Valerand Poulain도 역시 영국에 갔었다. 그는 거기서 Glastonbury 교회를 위해 프랑스의 예전을 재 출판했다. 그는 Edouard VI.세에게 Strasbourg에서 관찰된 좋은 방법들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한다.[56]
Pierre Martyr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큰 인상을 남겼다.[57]
XIX 세기 파리에서, Eugene Bersier의 직무 기간에, Eglise de l'Etoile는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칼빈의 직무 기간에, 그것도 Strasbourg에서, 프랑스인들, 그리고 Strasbourg 시민들 사이에서 큰 부흥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칼빈의 설교 때문만 아니라, 이러한 예전 그리고 찬양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바로 이 Strasbourg에서, 프랑스 교회에서부터, 칼빈의 사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 예전이 번역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가 Strasbourg에서 예전에 관한 작품을 쓸때는, 그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어쩔 때에는 소극적일 때가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제네바에서 세웠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58] "... 교육 바로 그것에 우리는 또한 열심을 쏟다 부어야 한다." 사람들은 생활을 할 때에는 너무 세상 쪽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어쩌면 칼빈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쫓겨나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Strasbourg으로 와서

54) S. Thomas의 고문서에 보관되어있음.
55) 칼빈이 떠난 4년 후에는 예배순서가 약간 달라졌다.(1545년경, 한 학생이 Lille에 있는 사촌에게 쓴 편지. Erichson l'Egl. fr., p. 22)
56) Ordre de prieres et ministere ecclesiastique, etc.
57) Loci communes, Hopper에게 보내는 편지, 1550년 11월 11일.
58) Preface du catechisme latin, Basel, 1538.

Strasbourg을 또한 새롭게 고치지 안았는가!
칼빈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그의 도우미가 4년 후에 기록할 새로운 것을 설립한 것이 있다:
"두 번째 예배는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됐다. 그 때에는 각자 자기의 7에서 10살까지 먹은 자식들을 대리고 온다. 예배가 끝난 다음, 목사님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키우기 위한 질문들을 한다. 아이들은 또한 Pater noster, 두 개의 Credo를 암송하게 된다. 나중에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암송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묻는다. 질문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묻는 것이다. 아이들은 '예'라고 대답한다.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세례로 인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리 문답집에 나오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목사님은 모두에게 한꺼번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어본다. 게다가 제일 지식이 없을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물어본다."[59]

3. 영혼의 치료, 개신교화,

칼빈이 성공적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를 따라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했다. 그를 따라 여러 지역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따라 가면, 거기에 어쩌면 이미 도망자들이 모여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의 모임을 나중에 Petit France(작은 프랑스)라고 불렀다. 칼빈은 목사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말을 남겼다: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시는 아주 큰 축복을 내려줬다." 만약에 목사가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마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적의 손에 들어가게 만드는 파수병과 같다"고 말했다. 칼빈이 Strasbourg에 오기 직전에 했던 말이다.[60]
칼빈과 같이 Picard 지방이나 다른 북쪽 지방의 프랑스 인들과, 몇 명의 외국인, 주로 이태리 인(칼빈이 Ferarre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들이 교회처럼 모임을 형성 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생활비가 없는 분들이 있었다. 교회의 재원은 거의 가득 찰 때가 없고, 칼빈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대한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나 칼빈은 도둑을 맞게 되는 상황까지 겹쳤다. Alberge라는 청년이 칼빈으로부터 20 batz(전쟁 전에 약 3 fr.)을 빌린다. 반대로 그는 칼빈에게, 귀중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바구니를 맡긴다. 그 청년은 한 번 다시 칼빈에게 왔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그는 1년을 기다려도 오지않자 칼빈은 Sturm이 옆에 있을 때 그 바구니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바구니 안에 있던 물건을 말해준다: "찢어진 책, 썩은 사과, 오래된 헌옷..."[61]
목사 또한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쟁취하기도 한다. 그는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재세례파에서도 복음의 영역을 넓혀간다.
칼빈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매우 기뻐했던 사람이다. 옛날에 Sorbonne에 있다가 거기를 빠져나갔던, 그리고 Marguerite de Navarre의 보호를 받았던 Pierre Caroli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538년에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1539년에 다시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빈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Bucer에게 바로 편지를 보낸다. "... 여기에서는(스위스) 항상 마치 외국인 같다. 그러나 네가 있는 곳은 너를 형제처럼 생각할 것이다." Strasbourg의 작은 교회는 마치 프랑스의 한 구석과 같기도 했다.[62] 그러나 Caroli와의 신학에 관한 논쟁이 칼빈을 크게 흔들리게 만든다. 그는 Caroli와 만났다. 칼빈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거기서 큰 죄를 지었다.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 하고 방에서 나왔다. Bucer가 나를 따라와서 나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내 집에서 나의 눈물에서만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좋게 상대방과 대화를 못 했다는 것을 후회했다.[63]

---

59) 발론 지역의 한 학생이 1545년경에 Lille에 사는 사촌들에게 쓰는 편지.(Erichson, l'Eglise fr., p. 23).
60) Catechisme de 1538, 라틴어 서론.(Opera. XL, p. 98, 1561년의 번역판)
61) 1542년 3월 14일의 편지, Opera, XI, 381.
62) Herminjard, VI, 35.

칼빈은 Beze가 말했듯이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감정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감정을 못 다스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이 때만큼은 Beze가 칼빈의 늙은 시절처럼 "조심스럽고 과묵한 성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병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4. Strasbourg 밖.- 국제 그리고 국가 종교 모임에서의 그의 외교적인 활동.(1539-1541)

1539년부터, 칼빈은 Frankfurt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Strasbourg을 떠나게 된다. 황제와 프랑스 왕사이의,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두 전쟁 사이에 종교적인 이해의 땅을 준비하려고 했다. (이것은 Bucer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파를 막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세계적인 회의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는 Frankfurt에서, 그렇게 뜻이 잘 통하는 Melanchton과 만나게 된다.[64] 그 둘은 같은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특정 루터 학파와 Zwingli 학파가 정치적 명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 까지도 안타까워했다.

단지 Frankfurt에 참석한 것으로, 칼빈은 6개월 후에, Bucer와 Capiton과 함께 Haguenau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된다.(1540년 7월 중순) 그는 Francois I.세가 보낸 사건를 엄하게 판결을 그러나 외교 고위 성직자들이 인문주의자 목사를 높이 평가한다. 목사는 그의 높아져 가는 영향력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 특히 그의 교회에 쓰기 때문이다. Cclvin Farel에게 이렇게 썼다: "... 나는 이러한 영광의 친숙함에 슬그머니 끼어 든다. 나는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돕고 싶다."[65]
그는 Marguerite de Valois에게 줄 편지를 Sleiden에게 건내 준다. 답장을 썼다. "왕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시고 있다. 계속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즉, 이것은 칼빈이 황제나 독일 개신교보다는 프랑스 왕의 이름을 걸고 하는 비공식적 임무가 된 것이다.

10월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번에는 3개월 동안이고, 완전히 공인된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Jacques Sturm이 Worms에서 Bucer, Capiton, 그리고 "교부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칼빈을 보내달라고 위원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 교장은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칼빈의 성격이 마음에 든다. 도시는 이러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된다." 칼빈과 교장은 Worms에서 de Lunebourg 공작의 대리인이었다. 여기서 이러한 심한 논쟁 중간에, 칼빈은 쉬면서 라틴어 시를 만들었다.(나중에 출판되었다: Epinicion Christo cantatum) 칼빈은 또한 토론회가 Ratisbonne으로 옮겨지면서, Strasbourg의 대표들과 합류한다.
Melanchton은 점점 더 칼빈의 천재성에 매료된다: "Delectatur magnopere ejus ingenio"[66] 개신교 신학자들은 가톨릭과의 회의에서 그들의 대변자, "prolocuteur"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활동은 그가 그의 작은 교회를 잊어먹게 하진 않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오는 장날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통보를 했다. 장은 6월 26일에 시작한다. 25일에 그는 돌아온다.

이렇게 Strasbourg에 있었을 때에나, 아니면 토론회와 같은 외교활동으로나, 그의 권위는 점점 더 올

63) Herminjard, VI, 52.
64) Opera, XI, 17.
65) 1541년 6월 9일, 목사님은 정치적으로나 가톨릭 역사학적으로 볼 때에, 칼빈을 프랑스 왕국의 이익을 위해 독일 안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물론 근거나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그만큼 칼빈의 심장에는 애국자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어준다.
66) Farel에게, 1541년 2월 19일.

라가게 되었다. Melanchton은 Ratisbonne 이후, 이렇게 말했다: "개신교들은 이렇게 매우 노련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은 행운이다."
한편, 칼빈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동안, 제네바에서는 그를 다시 부르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는 결국엔 나중에 제네바가 받게 된다.

III. 칼빈의 사적인 인생

우리는 그가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을 봤다. 대부분 칼빈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Farel이 제네바에서 그를 도왔다면, 그는 마찬가지로 Strasbourg에서는 Bucer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 Bucer 앞에서는, 칼빈은 인내를 하고 겸손해졌다: "나는 아직도 나의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전진을 하는 것 같다."[67]
멀리서 온 그의 친구의 편지는 그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다: "내가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편지가 왔었다. 나는 너무 기뻤다. 3개월 동안 나는 이렇게 기쁜 시간을 맞이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했다. 매일 밤, 나는 침대에서 자지 못 하고 뒹굴기만 했다.. 3일 동안 나는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참으로 놀랄만한 그의 열정과 감수성을 볼 수 있다!) Bucer도 그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다. 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심장, 나의 영혼이다!"[68]
다른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성격이 조금 안 좋았던 Zell의 경우, 그는 이 프랑스 동료에게 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칼빈도 역시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덜 겸손하고 존경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다.[69]
이러한 모습은 Farel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다: "목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존경을 받으려면 기독교인답게 행동해야한다."[70]
칼빈은 젊은 동료들에게는, 그는 마치 친형처럼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권고한다. 처음에는 집사 그 다음에는 목사보가 된 Nicolas Parent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가능한 한 말을 할 때에는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라."[71] 칼빈은 발도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식(ceremoniolae)에 관해서는 끈질기게 싸움을 걸지 마라고" 부탁한다(Bernois).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평화와 조화의 일꾼이다."[72] 이러한 영혼의 움직임은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보인다.
Strasbourg에서 그는 매우 젊은 학생들, 개혁자들을 볼 수 있었다: Zwingli, OEcolampade, Hedion; 그리고 특히 Souabe에서 온 18살의 청년 Marbach도 있다. 그러나 그는 후에 Bucer와 칼빈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나중에 Marbach는 그들의 사역을 공격하는 목사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73]
칼빈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교수였다. 학생이 이렇게 쓴 적이 있다: "tui amantissimus." 칼빈도 역시 학생들을 사랑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열의를 보고 감탄을 했다. 그는 한 학생 대해서 이렇

67) Baudoin이 인용했음, Responsio altera, 1562, p. 11과 41.
68) 1542년 10월 6일의 편지. 칼빈이 Strasbourg을 떠나면서 Bucer에게 그에게 계속 충고를 아끼지 마라고 부탁했다: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당신의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저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벌을 내리든, 충고를 하든,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허락된 것을 다 해주세요."(1541년 10월 15일의 편지.)
69) 집사 Parent에게 보낸 1540년 12월 14일의 편지.
70) 10월 24일의 편지.
71) 1540년 12월 14일.
72) Farel에게, 1538년 10월 24일.
73)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썼다: "네는 그렇게도 내가 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를 버리는 것을 보기에 가슴 아팠다."

게 썼다: "Totus ardet"[74]
칼빈은 우정에 있어서 의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열정적인 친구였다. 그는 한 번 Viret에게 이렇게 썼다: "너는 내 마음의 애정, 아니, 차라리 마음의 나약함[75]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만약에 친구 관계를 깨게 되면 크게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옛 신부였던 du Tillet과의 6년 동안의 우정 끝에, 같이 Strasbourg과 제네바까지 같이 여행을 한 후에, 서로를 도와가며 생활 한 후에, du Tillet이 다시 가톨릭이 된 후에, 우정을 깰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칼빈은 크게 실망하였고, 그의 옛 친구가 그를 공격하자 심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이 우정이 깨진 후에, 칼빈과 교장 Sturm과의 관계가 더욱 치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가장 쏙 들어온 사람은 그의 동료 중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었다: Claude Feray, 그는 젊은 헬라어 학자이며, 1541년 Bedrot 박사 대신 일하게 된다. "그는 그 2년 동안 힘들 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리 있는 친구였다. 그는 거의 내 형제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렇게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좋은 친구가 늘 필요하다!"[76] Feray는 아쉽게도 흑사병으로 죽고 말고, 칼빈은 크게 애통한다: "하나님이 그를 나로부터 데려 가서 나의 죄를 벌하기를 원했다!"

1. 그의 재정적인 상황

칼빈이 Strasbourg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물질적인 상황은, 우선 풍성할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특별한 계약 없이, 첫 9개월 동안, 1539년 5월부터 첫 해에 52 florins를 받았다. 그 다음 scolarque들은 그 액수를 올리려고 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100 florin의 성직록을 주기로 했다. 수도 참사회원들은 황제의 제출권을 반대했다: 우리를 제외시키는 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M. Schmidt는 이것이 Saint-Thomas의 보좌 신부의 성직록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고[77] M. Doumergue는 성당에 해당되는 성직록으로 생각하고 있다.[78] 1546년, 칼빈은 "성당 전속 목사의 지위를 포기해도 된다는" 위임장을 받게 된다.[79] 칼빈이 결혼을 한 후, 1541년 Farel에게 그 1년의 계약은 겨우 8개월 동안 살 수 있게 만든 돈 밖에 안 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 나의 잘못이다."
칼빈은 처음에 고통스럽게(paenuria) 살았다.[80] 그의 친구들은 그의 처지를 걱정해줬다. Thonon의 목사님은 Farel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대답한다: "... 나는 10 couronne을 우리의 경건한 칼빈을 돕기 위해 썼다... " 칼빈은 Beze의 말에 의하면 "세상적인 부에 대한 탐욕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81] Noyon에서의 장학금을 포기한 이후로, 그는 고정 수입이 없었으나,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빨리 갚으라는 재촉도 안 했다.[82] "지금 이 순간(1539년 3월말),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돈이 있는 척을 꼭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또 형제들에게 빚지게 된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작다: 그의 형제와 같이, 그는 Olivetan의 유산의 반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촌과 약혼했었던 Neuchatel의 한 여자와 유산을 나누려고 했다. 게다가 유산은 대부분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그 책들을 팔았다. "양식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다." 그는

74) 1540년 5월 13일(Opera, XI, 42).
75) Mollitiem potius(Opera, XIII, 231).
76) Opera, XI, 175.
77) Sturm, p. 48.
78) J, Calvin, II, 456.
79) 1546년 1월 21일(Opera, XII, 262).
80) Fabri의, Thonon의 친구, 1539년 5월 8일.
81) Opera, XXI. 64.
82) 1539년 8월 25일의 편지: Chablais의 한 목사님이 작은 대여금을(pecuniola) 지불하는 것이 늦어졌다: "그는 나의 난처함을(inopiam) 알고 있었다."(Herminjard, VI, 32).

Farel에게(1539년 4월) 편지를 썼다:
"저는 당신이나 내 친구의 친절함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Wendelin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책(혹시 psautier인가?)을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겨울까지는 주인장에게 돈을 주며,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83]
그는 Farel에게 제네바에서 Neuchatel로 보내진 책 "한 tonneau(부피 분량의 단위)"를 팔아주라고 부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이 1540년 3월에 Reponse a Sadolet을 인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84] "아주 많이 사는 사람들 외에는 10 batz(전쟁 전에는 9 fr.) 아래로 팔지 마세요. 만약에 많이 사면 8 batz 아래 팔아도 됩니다." [85]

2. 집 그리고, 가족

칼빈은 우선 Bucer의 집에서 자고 밥을 얻어먹었다. Bucer의 집은 rue des Chevaux(오늘날 rue Salzmann 3번 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아마도 같은 동, 주인이 같은,- Saint-Thomas의 교회 참사회원- 집으로 이사갔다. 이 집은 매우 컸고 많은 손님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금으로 지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여기에 살고 있었다.(자주 배가 고팠던 장학생들이이다: valde esuriunt)[86]
정확히 어디에 이 집이 위치하고 있었는가? Saint-Thomas의 교회 참사회원인 한 Strasbourg의 목사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집은 rue du Bouclier에 있었다고 한다. 혹시 지금 현재 rue du Bouclier 2번가, rue de la Monnaie와 만나는 곳, 1789년에 지어진 사원 옆에 있는 장로회 목사님들이 이용하는 집인가? 곡식창고의 한 타일에 1531년이라는 날짜가 적혀있다. 사원 뒤에 있는 작은 뜰은 Bucer의 집에 인접하고 있다. Rue du Bouclier에서 몇 걸음만 더 가서, 남쪽으로는 rue de la Monnaie, 아니면 북쪽으로는 ruelle des Hannetons로 가면 rue Salzmann에 도달하게 된다.
1층에는 당연히 하인들이 몇 명 있는 한 큰방에 난로가 하나 있다. 칼빈의 하인 중 한 사람은 프랑스, Castellion에서 온 Jean Chevant였다.[87] 이 1층에는 자주 거북한 손님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1540년의 한 겨울 날에, Furstenberg 백작의 군인들이 들어왔다.[88]
그래도 원한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한 번 목사 자격을 받을 수 없는 Caroli의 친구가 왔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떡해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답이 나왔다: "나는 당신에게 인사나 눈빛 하나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사냥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89]
그러나, 우선 한 번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 집의 주인은 30세 때 이렇게 썼다: "나는 마치 늙은이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걱정한다." [90]
손님들 중에, 목사가 된 옛 도미니카 수도승을 볼 수 있었다. 그는 22살 때, Metz 수도원에서 나간 사람이다. 칼빈은 그에게 후계자의 가능성을 봤다: Pierre Brully.[91] Castellion도 인상에 남은 손님이었

83) Opera, X, p. 339.
84) France prot., 2 째 출판, III, 575.
85) Opera XI, 63, 1540년 7월 27일.
86) 1540년 6월 21일의 편지.
87) Castellion, Defensio adversus libellum, etc., 1578. p. 26.
88) 백작 Guillaume de Fuerstenberg는 Strasboug에 rue des Pucelles(Jungfraugasse)에 자기의 집이 있었다... 프랑스 개혁자들이 어쩔 때에 "Salzmann 서기가 XVII 세기 중반에 살았던 곳"에서 모이기도 했다. 그러나 M. Erichson(p. 62)는 어느 시대인지는 말을 안 했다.
89) Farel에게, 1539년 10월 27일(Herminjard, VII, 56).
90) 1540년 3월 30일.
91) Farel에게, 1541년 7월말. 1540년 말부터 칼빈은 이 "경건하고 겸손한 젊은이를"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썼다: "apud me habitat."(Farel에게, 8월 13일.)

다. 나중에 흑사병이 돌고 있었을 때, 칼빈은 연금 수령자들이 흑사병에 죽자,[92] 칼빈은 Castellion의 집으로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는 칼빈에게 "너나 나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나도 환자들에게 이미 나의 침대를 양보했다."[93]
흑사병이 쓸고 갔을 때, 희생당한 사람중 한 명인, Louis de Richebourg의 아버지에게 칼빈이 편지를 띄웠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그를 나의 자식처럼 생각했고, 그도 나를 역시 나를 제 2의 아버지처럼 존중을 해줬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나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꽃을 채 피기도 전에 꺾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는 주님 곁에서 성숙해지러 간 것입니다."
1539년 봄에는 이 곳에, 칼빈의 형제, 그의 친구 Feray, 그리고 그 외에 8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3명의 젊은 귀족들이 있었다.[94] 11월경에는 Castellion이 자기의 자리를 아들과 함께 온 부인에게 양보를 했다.[95] 그러나 그녀는 성격이 안 좋았고, 칼빈의 형제와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았다. 어는 날, 칼빈의 형제는 저 여편네가 있는 동안에는 이 곳에 다시 오지 않겠다며 떠났다.[96]
Strasbourg에 가족이 없는 채. 칼빈은 그의 사촌 Olivetan이 이태리에서 죽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은 1539년 1월에 들어왔다. 그는 곧 다시 그의 형제를 만나고 제네바까지 동행한다. Antoine는 그의 형처럼 나중에 성직을 버리고 제본사가 된다.[97]

3. 혼인에 대한 생각

내가 알기로는, 칼빈은 Strasbourg에 오기 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편지 교류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결혼에 대한 흔적은 Bucer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Bucer는 개신교 설교자들이 가톨릭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필수로 봤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자들은 Bucer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 했고, 그 중 한 명은 칼빈이었다. 개혁자들은 결혼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과, 많은 아내를 가졌던 구약에 대한 너무 직접적인 해석에 당황을 금치 못 한다. 루터, Melanchton 그리고 Hesse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개신교는 모세의 법이나 결혼에 대해서 위법한 것이 없다."[98] 건전한 Strasbourg 시민들은 확실하게 중혼을 반대했다. 재침례파의 경우, 중혼자를 물에다 던져버린다.[99]
루터는 1525년이 되서야 결혼을 했다. Zell은 정원사의 딸인 Catherine Schuetz와 결혼을 했다. 옛 수도승이었던 Bucer는 옛 수녀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13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의 아내가 죽자, 그는 다시 과부와 또 결혼을 했다. 그녀는 한 때 OEcolampade의 아내였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생각하는 칼빈에게는 결혼에 있어서 다른 입장이었다. 그는 독일 백작의 이중결혼을 맹렬하게 비난한다: "digamia 보다는 dusgamia: 두 번의 결혼보다는 천한 결혼." 그는 Strasbourg에 도착하면서, 구약시대의 족장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이었고, 따라해서는 안 될 옛날 사람들의 "탐욕"으로 보인다.[100]
칼빈은 여기서는 신부들이 성 바울과 디모데의 구절을 번역한 것을 따르기도 했다. 바로 한 번 결혼하

92) Herminjard, VII, 69.
93) Defensio, etc. p. 27. Herminjard, VII, 56.
94) Louis, Charles de Richbourg 그리고 젊은 Malherbe. 한 브르타뉴 사람(Jean Curie?), Eynard Pichon, Jacques Sorel, Robert de Louvat(cf. Doumergue, II, p. 460).
95) Farel에게 1540년 9월말.(Opera, XI, 83.)
96) 이 부인은 아마도 college de la Trinite의 교장, 그리고 칼빈의 친구였던 Eloi de Vergier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사촌은 칼빈이 Strasbourg에 있었던 시대에 제네바에서(1538-1544년) 인쇄업자였던 Jean Michel과 결혼을 했다. 비교. Doumergue, J. Calvin, II, p. 175.
97) "France prot., 2 째 출판, II, 639."
98) 1539년 12월 10일.
99) R. Reuss, Histoire de Strasbourg, p. 151.
100) Antoine Piquet에게, 1538년 10월 1일.

라는 것이다.
그는 홀아비 목사의 두 번째의 결혼이나, 목사들의 결혼이 필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편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신부들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반대했던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것인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101)
그는 즉, 애매한 이유로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확실히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말은 아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다시 독신 생활을 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독신 생활은 나에게 별로 버거운 짐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아무 노력 없이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다."
Bucer는 첫 몇 개월 동안, 그가 Strasbourg에서 한 여자를 찾으라고 재촉한다. Farel도 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다. 이렇게 주위사람들이 그를 위해 여자를 찾고 아무 노력을 다 해도 새로운 소식은 없다.102)
칼빈은 봄에 약혼을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해서 된 약혼이 아니었다. 그는 그러한 고민을 Farel에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나에게 맞는 여자를 찾지 못 했다. 그리고 계속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Claude와 나의 형제는 나를 약혼시켜버렸다... 결국엔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나의 형제는 그 여자 쪽으로 갔다." 103)
6주 후, 또 한 번, 그의 인생은 갑작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는 이제 31세가 되어 가는 참이었다...

4. 칼빈 부인

8월 17일, 한 편지가 그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결혼식은 Farel이 Strasbourg으로 와서 그가 주례를 봤다. Bucer는 그 때 Worms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만약에 안 갔으면 분명히 그가 주례를 행했을 것이다. Beze는 이렇게 말했다: "칼빈은 Bucer의 방법과 권유로 결혼했다." 그리고 칼빈의 아내에 대해서는 "근엄하고 성실한" 여자로 표현했고, 그녀와 함께, 칼빈은 "늘 화평하게" 살았다고 한다.
Farel도 그녀를 "열심이 있고, 성실하고, 예쁘게" 봤다. 칼빈은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추도 연설 때에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아내였다."
Idelette de Bure는 재세례파의 Jean Stordeur의 아내였다. 그녀는 Liege에서 왔고, 칼빈을 제네바에서 알게 되었고, Strasbourg에서 개종을 하게 되었다.104)
이 새 부부는 슬픈 신혼여행을 떠난다. 둘 다 병에 걸린다. "나의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흔한 일이라서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지만, 화요일에는 나는 말하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는 병으로 침대에 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칼빈 부인도 토하고 열병을 앓게 된다, "그녀는 그녀의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 다음, 칼빈은 Worms를 향해 갔고, 1541년 1월 중순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또 토론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 Ratisbonne에 4개월간 있었다.
흑사병이 Strasbourg을 강타하고 그는 멀리서 걱정만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내는 그녀 오빠의 집으로 피난 갔다.105) 밤낮으로, 그녀는 내 눈앞에 있다. 그녀가 먼 곳에 있기에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

101) 날짜가 없는 편지(Opera, X, 228.).
102) Farel에게 보내는 편지, 5월 13일.
103) 1540년 6월 21일.
104) 1924년, Strasbourg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Stordeu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 가족에서 파생된 여러 갈래에서 나왔다. 칼빈이 독일 사람과는 결혼하기 싫었다는 이야기는 모순점이 있다. Idelette도 역시 독일 가문에서 파생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05) Bull. hist. prot. fr. 1907, 230 그리고 1923, 61.

구나."
돌아와서, 그는 Strasbourg에 10주 밖에 있지 않고 제네바를 향해 다시 간다. 그녀의 아내는 그를 따랐고, 몇 년 후에 죽었다.
우리는 Idelette Calvin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정보에 관해서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녀는 흑사병으로 그녀의 자식 다섯과 함께 죽은 Bucer 부인과 어떤 사이였을까?

5. 두 개의 자화상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부부의 두 개의 자화상을 여기서 언급할 것이다. 그 시대(1540) 칼빈의 자화상은 Strasbourg에서 그리 많이 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 바로 Hanau, 개혁 교회 종무원의 방에 있다. 복사된 것은 Frankfurt 교회에 있다. 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Holbein이나 Titien이 아니다. 그림의 칼빈은 검은 벨베트 박사 모자를 쓰고 있다. 그의 옷도 역시 검은색이고, 단순하며 우아하다. 하얀 장식깃이 있고, 그의 왼쪽 손에는 하얀 장갑을 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더 나이를 먹은 후의 자화상에서도 볼 수 있다. 반지의 빨간 보석에 어쩌면 1541년이라고 읽을 수 있다.[106] 인상은 섬세하고, 얼굴 표정은 우아하고, 눈은 뚜렷하고 생명력이 감돌고 있으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눈썹은 깨끗하게 활처럼 구부려져있고, 코는 커다랗고, 입은 작고, 수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잘 정돈되어 있다. 그의 턱은 나중에 그려질 자화상에서처럼 그렇게 많이 튀어 나와있지 않고, 광대뼈는 약간 돌출 된 상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중하고 품격 있어 보인다. 이 모습은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아니고, 수염이 덥스룩이 나있는 교수의 모습이 아니다. 차라리 Ferarre 왕실이나 Ratisbonne 왕실의 대학교 강의실이나 볼 수 있는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Douai의 박물관에 있는 Idelette de Bure의 자화상[107]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더 우아하다. 그녀 역시 모자를 썼고, 어두운 색깔이 블라우스에 금단추가 달려있고, 훌렁훌렁한 소매와 좁은 허리의 옷을 입었다. 허리띠도 여기 금으로 장식되어있다.
이러한 모습은 잘 사는 부르주아 여성의 옷차림새라고 볼 수 있다. 머리는 검고잘 보이지 않은 머리띠 두 개로 고정되어있고, 입은 작고, 코도 우뚝 섰고, 눈썹은 너무 짙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쁜 여자지만, 무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다.

Strasbourg의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칼빈이 여기서 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언급하자. 그는 공부를 하는 동안 건강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철야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가 쫓기면서 여행을 간 것, 목사님으로써의 걱정이 그의 건강을 해쳤다. 1535년, 26살 때부터, 그는 "이 노쇠한 인생은 곧 끝나고, 이것은 단지 불멸의 묵상"이라고 했다.[108] 1536년 10월에는 그의 "상한(fracta valetudo)"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09]
Strasbourg의 날씨는 그의 건강에 안 좋았다. 그는 여기서, 제네바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열을 자주 겪게 된다. 1539년 3월말에, 그는 Farel에게 이렇게 썼다: "저는 당신이 조심하라고 한 데로, 내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110]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제가 젊어도, 저는 내 몸이 약해지는 것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111] 그는 잠을 조금 잤고, 밤을 글쓰는데 시간을

106) 오히려 1521처럼 보인다. E. Doumergue 참고: Iconographie calvinienne, Lausanne, 1909, planche I 그리고 p. 19.
107) Iconogr., planches XV 그리고 p. 89.
108) Catechisme francais, p. 4.
109) Herminjard, IV, p. 90.
110) Opera, X, p. 332.

보냈고, 결국 자주 편두통을 앓았다.
물론,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그가 떠난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Viret의 말대로, 칼빈에게는 제네바의 날씨가 더 좋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IV. 이별.

그는 어떻게 떠났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갔는가?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해 Strasbourg에 왔던 그는 1년 동안 교수로 임명되었고, 점차 그는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539년 7월 29일, 그는 시민권을 샀다.[112] 모든 시민은 조합 단체에 속해 있어야만 했다. 그는 재단사 조합에 들어간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rue du Dome과 rue Brulee의 모퉁이에 있다.
칼빈은 이 시민권을 그가 Strasbourg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그가 이 시민권을 얻은 지 오래 안 돼서, 제네바에서는 그를 다시 부르기 위한 조짐이 보였다.
1539년 2월, 새로운 시의회가 설립된 후, 바로 칼빈에게 제네바 시민권을 제의했다. 칼빈은 그러나 거절한다. 또 시간이 흘러, 새로운 시의회, 다시 부탁하고, 칼빈은 다시 거절했다(1540년 3월 29일). 그는 Farel에게 이렇게 썼다: "이 십자가보다는, 백 번 죽는 것이 낳습니다." 그리고 Viret에게는 이렇게 썼다: "그 고문의 방에 갇혀있는 것보다 지금 이 방 사라지는 것이 낳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네바에서 이루어낸 것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흔들리게 된다. Farel이 특히 칼빈에게 절박한 상황을 자주 설명해줬다. 칼빈의 뒤를 이었던 Marcourt는 간청했다: "너의 결정으로 인해, 온 프랑스(omnes Gallias)에서 맺힐 열매를 생각해보세요." 10월 13일, 제네바 시의회가 공식적인 부탁을 칼빈에게 보냈다. 칼빈은 이번에도 소심하게 행동한다: 그는 Strasbourg에서의 그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목사를 교회를 맡게 했으면 , 목사는 그 일에 매달려야한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Worms로 가라고 한다. Worms에서는 각 지역의 개신교 상황과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상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Bucer는 그와 동행까지 했다.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두 번째 연락이 왔다. 10월 24일,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나의 운명의 지배자가 아니다.('non mei juris', 이것은 법학자의 표현이다.) 나는 내 생명을 제물로 주님께 바친다."[113] 이것이 바로 늘 칼빈 안에 숨겨진 무기였다: 뻗은 손에 있는 그의 생명.
계속 소심한 칼빈은 그의 의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에서 보내진 사람들로 인해, 그는 흐느껴 운다.[114] 그는 그의 운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의 섭리의 개입을 기독교적인 인생에서 믿어왔다: "나는 자유롭지 못 해서, 형제들과 동료(제네바와 Strasbourg의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권고를 참고한다. 나는 그들이 마치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들을 존중하겠다."[115]
Farel은 끝까지 끈질기게 칼빈에게 접근하고, 결국에는 칼빈을 두 번째, 1535년처럼, 그를 제네바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칼빈은 1541년 3월 29일 이렇게 썼다: "제가 졌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싸움은

---

111) 1540년 5월 30일(Herminjard, VI, p. 131.).
112) Strasbourg의 Livre des Bourgeois에서 참고, Gotha 고문서에 보관되어있는 법적으로 복사된 복사본. "칼빈은 시민권을 샀고 재단사 조합에 들어갔다. 1539년 7월 29일." Bretschneider, J. Calvini literae, Lipsiae, 1835; facsimile dans E. Doumergue, J. Calvin, II, p. 350. Beze의 말에 의하면(Vie de Calv., Op. Calv. XXI, p. 131) Strasbourg 시민들은 그를 환영했으며, 그가 이 곳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113) Opera, XI, p. 92.
114) Farel에게, 1540년 11월 17일, Opera, p. 114.
115) Bernard에게, 1541년 3월 1일, Opera, XI, p. 166.

결국 2년 동안이니 계속 된 것이다.
8월초, 칼빈은 그의 수업을 "그만둔다"[116]: 이것이 결정적인 울타리가 아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제네바에 갔다온 다음, 그가 그 곳에 가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엔 떠나게 된다. 그는 Strasbourg, 그의 학생들, 그의 동료들을 떠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그는 당신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놀랄만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도구가..."[117] 이 메시지(프랑스어로 되어있음)는 Bucer가 만들었다. 칼빈을 처음에 맞아들인 Bucer가 마지막으로 칼빈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또한 간청하기를, 그가 세계적인 교회를 위해 여기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과 교수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Strasbourg에서 제네바까지 메신저는 6일이 걸린다.[118] 칼빈은 10일 넘게 걸렸다.(9월 2일에서 13일까지.) 아마도 갔었던 길은 Mulhouse, Basel, Neuchatel, Lausanne을 거쳐서 갔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시작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귀국이 아니라, 영구적인 귀국이다.

V. 마지막 방문들

그는 Bucer와 함께 계속 친구로 편지교류를 한다. Bucer는 극진 루터 학파의 공격성 때문에 그도 역시 Strasbourg을 떠나야겠다고 썼다. 그러자 칼빈은 그를 스위스 쪽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했다.(1549년 3월)[119] 그가 추방당한 후, 그는 Strasbourg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썼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성스럽고 형제와 같은 화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120]
이 반동의 우두머리인 Marbach는 1551년까지 칼빈이 Trente 종교회의에서 Strasbourg의 대표자로 나오기를 요청했었다.
1556년, 칼빈은 Frankfurt로 가기 위해 여기에 또 한번 들린다. 교수들은 축하연을 열고, 동료들은 그에게 찾아온다. 학생들도 칼빈이 왔을 때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교장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칼빈을 칭찬한다.[121] 칼빈은 물론 그의 프랑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했다. Marbach에 의해 훈련된 교회에는 새로운 젊은 목사들이 있고 그들은 칼빈이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칠까봐..."[122] 칼빈의 소망을 거절한다. 옛날에 4대 도시 연맹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형제처럼 모였던 그 시대와 칼빈이 다시 찾아왔을 그 때와의 영혼들이 얼마나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시간이 더 흘러도, 칼빈이 떠난 지 18년 후에도 그를 기억한다(1559). 카톨릭에 대한 방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그를 부르려고 한다. 칼빈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던 것을 많이 아쉬워했다. 1562년에, 그는 Bude를 보내서 Sturm과 만나서 Vassy의 대학살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계속 Strasbourg과는 교류를 했다.
칼빈이 특히 신경이 갔던 곳은 역시 작은 프랑스 교회였다. 이 교회는 그에게 특별했다. 그가 떠난지 3년이 됐을 때, 그의 뒤를 이은 이 교회의 목사 Valerad Poulain은 주일에 그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썼다.[123] Saint-Guillaume의 목사는 1550년에 역시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당신이 만든 교회가, 아직도 이 사원에는 그 때처럼 행복이 넘친다."[124]

---

116) Viret에게 보내는 8월 13일의 편지.
117) 9월 1일, Opera, XI, p. 271.
118) 1556년의 Hotman에게 보내는 편지.
119) Anrich, Bucer, p. 111.
120) 1555년 1월 18일, Opera, XV, p. 385.
121) Hohman이 Bullinger에게, Opera Calv., t. XVI, p. 302.
122) Erichson, Eglise fr. de Strasbourg, p. 65.
123) Poulain이 칼빈에게, 1544년 11월 28일.(Herminjard, IX, p. 481.)

그러나 Marbach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이상 ultra-luther의 길로 진로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칼빈이 그들의 목사 Holbrac에게 Concorde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독일 숭배 사상이 깃들었다. Convent의 회의에서(1561) 특정 목사님들은 Holbrac가 알아듣지 못하는 독어로 이야기했다.[125]
결국 프랑스 교회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말았다: 1563년 8월 19일이라는 날짜는 Saint-Andre 예배당의 종결을 의미한다. 칼빈은 애통했다: "이렇게, 25년 동안 꽃을 핀 후에, 작은 교회는 무너졌다." [126]
이 교회를 지은 사람도 그 뒤에 오래 살지 못 했다.

이글의 출처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회입니다.
http://www.johncalvin.co.kr/lectures/lecture_list.asp?table_name=D_politic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24) J. Lenglin이 칼빈에게, 1550년 4월 21일, Opera, XIII, p. 556.
125) Sturm이 칼빈에게, 1550년 4월 21일, Opera, XVIII, p. 481.
126) 1563년 9월 12일, Opera, XX, p. 151.